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Vol. 9, No. 2, pp. 143~160

# '가정생활'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

윤 지 현

중앙대학교 강사

# A Study on the image of 'home life'

Yoon, Ji-Hyun

*Instructor of Chung-Ang Univ.*

##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images of 'home life' through the goals of 1st-6th secondary Home Economics education curriculums and to identify the images of 'home life' held by undergraduate students(83).

As results, in the goals of 1st-6th secondary Home Economics education curriculums, 1) the term of 'home life' is used most frequently, and 'home life' is confused with 'daily life'. 2) 'Home life' is used directly or expressed with clothing life, food life, shelter life, consumer life, etc. in the curriculum goals. 3) 'Home life' is dealt differently with 'family life'. 4) The image of "home life" has showed traditional sex role identification.

In the replies of undergraduate students, the images are classified with following: 1) the images of 'home' were expressed warmth(hearth), relexation(ease or comfort), sharing, basic unit of society, and conflict and oppression. 2) The images of 'home life' were expressed hearth, sharing, conflict(interaction), relexation(ease or comfort or sability), routine(act or household art), basic unit(shelter), responsibility and obligation, and reproduction(biological meaning). 3) The images of 'daily life' were expressed routine(simplicity of boring or routine acts), comfort(stability), oppression, diverse activities in everyday, human relationship, and social life.

## Ⅰ.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금까지 가정과교육 분야에서는 학문의 정체성을 찾기위한 노력들이 꾸준히 이루어져왔다. 그것은 주로 가정과교육의 인식, 목표 등에 관련된 연구들이었다. 그러나, 가정교과의 인식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가정과교육 내용의 필요도에 관한 조사이거나 혹은 '가정교과가 가정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의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들이었다. 목표에 관한 연구도 구체적인 수업목표(objectives)에 관한 것들이 주로 이루어졌고 가정교과의 전체 교육과정의 목표(goals 혹은 aims)에 관한 깊이있는 연구가 부족하여서 가정교과의 정체성에 대한 깊이있는 탐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가정과교육의 목표를 명료화하여 학문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오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이다. 그중 중점적으로 논의되어 온 개념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차이는 있지만, 지금까지 가정과교육 연구자들이 가정과교육의 목적, 성격, 정의 등을 언급할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가정생활' 혹은 '생활(교육)'이라는 용어였고(고현숙 · 김기남, 1989; 윤인경, 1989; 윤서석, 1990; 성화경, 1990; 이영세, 1996; 최동숙, 1996; 남현주 · 유태명, 1996; 김경애, 1997), 이것은 1차부터 6차까지의 가정과교육과정에 제시된 목표에서도 가장 자주 언급되어져 왔다. 즉, '가정생활' 혹은 '(일상)생활'이라는 용어는 가정과교육의 목적, 정의, 성격 등에 관한 언급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해왔기 때문에 가정과교육의 제 1차적 관심이 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술되어왔을 뿐만 아니라 가정과교육과정의 목표를 나타내기에는 명료하지 못한 방식으로 진술되어온 경향이 있다. 즉, 가정과교육의 관심이 '가정생활'에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가정', '생활', '일상생활', '의식주생활', '가족생활' 등의 용어와 혼동해서 사용하여왔다.

그렇다면 가정생활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정과교육은 가정생활의 어떤 측면에 관심을 가져왔는가? 가정과교육은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의 실제 가정생활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었는가?하는 의문을 갖게된다. 가정과교육의 목표, 성격, 정의 등에 관한 언급에서 '가정과교육은 가정생활을 무엇으로 보아왔는가'하는 것은 곧 가정과교육 자체의 이미지 혹은 정체성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Larson(1974, p.136)은 이러한 측면에 대해 "가정학의 목적이 불명료할 때 일상생활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 가정생활에서 보다 본질적인 것은 인간의 행위이며 그 행위는 가치, 문화, 규범과 관련되어있다. 만일 우리의 학문이 가정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즉, 가정생활에서 일어나는 행위들과 관련이 없고, 그러한 행위들은 학교에서 교육받지 않아도 저절로 알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의 학문은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가정학의 본질에 관한 연구에서 '가정'이라는 용어는 대체로 가정학의 전문성에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어온 경향이 있었다. 즉, 학문의 명칭, 목표, 성격을 나타내는 용어로서 '가정'이 매우 감상적이고 성역할을 고정시키는 느낌을 준다는 것이다(East, 1980, p.164). 그러나 '생활'이라는 용어가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느낌을 준다고해서 '가정'이라는 용어를 대신해서 그 학문을 대표하는 용어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며 오히려 학문의 대상이 모호해짐으로서 그 정체성을 희박하게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보인 주장도 있어왔다(이기열, 1991). 가정과교육에서는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많은 두 단어(가정, 생활)를 합하여 학문의 목표에서 주저없이 사용하여왔지만, 그 용어의 명확한 의미 혹은 상징하는 바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해왔다. 교육과정의 목표는 그 학문의 정체성을 가장 대표하는 진술이므로 좀 더 뚜렷한 방향감각을 갖고 진술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의 학문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용어들을 진술할 때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가정과교육에서 '가정생활'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그것에 대한 가정(assumption)은 단지 집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는 의식주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가정'이 인간의 삶에서 중요하며, '가정'과 관련된 인간의 행동은 사회와 관련이 깊다는 가정하에서 '가정생활'이 학문의 대상으로서뿐만 아니라 목표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 온 것이다. 따라서 가정학자와 가정과교육학자들은 인간의 일상생활을 가정생활의 확대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가정'을 학문의 중심에 놓고 '가정생활'을 연구하며, 더 나아가서 개인의 '일상생활'에 관심을 갖는다. 가정안에서 일어나는 매일매일의 행동은 가정 밖의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것이므로,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생활인 의 · 식 · 주 · 소비생활 등에 대해 가정학과 가정과교육이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학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가정, 가정생활, 일상생활'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가?그들은 어떠

한 기대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가?우리가 그 용어들을 사용하는 의도와 일치하는가? 가정과교육에서 이러한 용어들에 대한 명료한 이해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학문의 이미지와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정과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가정', '가정생활', '(일상)생활'등의 용어는 우리 분야의 전공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에게도 명료하게 이해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이미지란, '정신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이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 'imaginari'에서 비롯된 용어이고 (Buzan & Buzan, 1993, p.73), '영상' 혹은 '모습' 혹은 '마은 속에 그리는'을 의미하는 라틴어 'imago'에서 유래된 말이기도 하다. 따라서 어떠한 대상을 보거나 들었을 때 혹은 생각했을 때 정신적으로 떠오르는 아이디어, 속성, 심상을 말한다. 이미지에 관한 연구는 주로 문학, 음악, 회화, 무용 등의 예술분야와 광고 등의 언론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왔으나 주로 감각에 의존하는 개념으로서 설명되어왔다. 그러나 가족 이미지를 연구한 Gubrium과 Holstein(1987)에 의하면 가족 이미지는 가족이라는 현상에 대한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 것이라고 보았다. 즉, 이미지란 어떤 대상에 대한 인상같은 것을 말하고, 또 그 대상을 어떻게 의미규정하는가(예 ; 가정이 안식처라는 의미규정과 같은 것)와도 관련이 있는 개념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족'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는 것은 家族像(가족이미지)을 본다고 표현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조은숙 · 옥선화, 1995, p.113 재인용). 따라서 이미지는 단순히 감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경험에 의존하는 아이디어, 속성, 심상, 의미규정 등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미지는 평가적 판단(evaluative judgment)이므로 집합적인 평가가 의미있게 이루어질 때, 모든 사람이 비교적 잘 이해할 수 있는 명료한 특징적 요소(parameter)들로 이루어진 정체성을 얻게된다(Daniel Yankelovich, 1974, p.19).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가정생활'에 대한 인식과 이해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자료를 얻기 위하여, 가정과교육과정의 목표에서 '가정생활'이 어떻게 다루어져서 전개되었는지 분석하고, 가정교과와 상관없이 실제로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가정', '가정생활', 그리고 '일상생활' 등의 용어에 대한 이미지를 분석하기위한 것이다.

##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문헌 고찰 및 질문지법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가정과교육과정의 목표에 대해서는 문헌고찰이 그리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한 질문지는 brainstorming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조사 대상은 4년제 남녀공학 대학에 재학중인 남녀학생 83명으로 다양한 전공이 포함된 비전공자 43명과 가정교육 전공자 40명으로 구성되었다. 조사 시기는 1997년 9월 29일에 비전공생들에게, 그리고 9월30일에는 가정교육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각각 30분씩 시간을 주고 자유 기술하게 하였다. 대학생을 선정한 이유는 조은숙 · 옥선화(1995)의 '가족상' 연구에서 '가족'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긍정적이며 이상적인 결과로 나타났던 이유가 기혼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한장의 종이에 3가지 질문('가정', '가정생활', '일상생활')에 대해 각각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격려되었으며 그 결과 자료는 brainstorming방법에 의해 수집되었다. 즉, 이들에게서 얻어진 결과는 다시 세개의 문항에 대해 각각 83명의 응답을 따로따로 분류하여, 유사한 의미를 갖는 표현들끼리 묶어주고, 이렇게 묶인 응답들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용어를 그 안에서 찾아내서 진술하였다. 이 과정은 연구자와 또다른 보조 연구자가 수집된 결과를 따로따로 분석한 후 비교하여 다시 분류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각각 따로 분석한 결과, 이미지 그룹을 대표하는 용어에서 약간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매우 유사하였다.

##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1) 가정과교육과정의 목표가 교과내용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보지 못하였고, 더 깊이있는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여 분석하지 못하였다.

2) 가정생활의 이미지 연구는 전통적인 해석학적 연구방법에 의한 것이 더 적절할 것이나, 이미지 연구의 어려움 때문에 본 연구서는 이를 차후의 연구로 미루고 이를 위한 기초 연구로서 다소 제한적인 방법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즉, 가정교과 자체에 대해서 혹은 본 연구에 사용된 용어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있는 인식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단지

'-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은?'라는 식의 단편적인 방법에 의존하였다.

3) 가정, 가정생활, 일상생활 등의 세가지 용어의 이미지를 동시에 질문하여 각각의 언어의 이미지에 대해서 더 깊이있는 논의를 하지 못하였으며, 언어 그 자체가 주는 이미지만을 고려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차후에 각각의 이미지를 개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II. 이론적 배경

### 1. 가정학의 이미지에 관한 선행연구

현재까지 가정과교육의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연구한 것은 거의 없지만, 가족의 이미지에 대한 연구와 가정학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는 몇 편 들 수 있다.

가족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로서 조은숙·옥선화(1995)의 '가족상'(family image)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응답자들은 '가족'의 이미지를 '애정'과 '따뜻함'으로 진술하였으며, 매우 긍정적이고 이상적인 이미지만을 보였다. 가족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응답이 없었던 것에 대해 연구자는 '가족의 이상화 경향'이라고 지적하고, 이것은 각 개인이 가족 이외의 삶의 형태를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가족 내의 개인의 불리한 현실이나 이들의 변화요구가 수용되기 보다는 가족생활이라는 지상명제 아래에서 조절, 통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가족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비판하기에 앞서서 사람들은 왜 가족을 긍정적인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는자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가정학에서는 가족에 대한 이상적인 이미지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우려하기보다 가족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실제의 삶에서 실현시켜 줄 수 있는 방향에 관심을 갖고 더욱 노력해야 한다.

AHEA의 의뢰를 받아서 이루어진 Yankelovich (1974)의 가정학 자체의 이미지에 대한 연구에서는, 사회 각계의 전문가들에게 가정학과 가정학자의 이미지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오늘날 가정학자는 지식과 추상적 개념의 차원에 공헌하는 사람이라기보다 행동하는 사람(do-er), 과제지향적인(task-oriented) 수행자(performer)로 보여진다(p.7)", "가정학자는 practical girls이나 철학하는 사람들이 아니며, 기능(skills)을 다루긴하나 아이디어를 다루지는 않는다", "그들은 행동주의자(activists)로서, 기능(skill)의 개발에 관심이 있다"(p.21), "과제지향적이나(task-oriented), 연구 지향적이지(research-oriented)않은", "homemaking skills과 domestic roles에 관심이 있다", "직업과 관련이 없고 요리와 재봉을 하는 기능에 관심이 있다", "기술자(technitions), 그들은 손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 "중산층 전문가", "중간정도 수준의, 비전문가" 그리고 "가정주부가 되고자 원하는 여성들"(p.22), "가정학은 요리, 바느질, 그리고 영양(학)과 같은 가정내의 기능(domestic functions)에 우선적으로 참여한다"(p.31).

즉, 가정학은 거의 혹은 전혀 일관된 정체성이 없으며 전문성이 결여된 것으로 나타났고, 따라서 그 분야를 대표하고 있는 가정학자들도 또한 전혀 명료한 정체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등학교와 대학의 교육자들은, 가정학을 가르치는 목적(goals)이 새로운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그것은 "삶에 대한 가치(the value of life and life's values)를 가르치고", "영양학과 의류학에 시간을 좀 덜 할애하며", "기술지향적인 성격에서 탈피하여, 학생들에게 반드시 삶에 대한 준비를 시켜야만 하고", "교육과정을 다학제적으로 만들고, 정치적 행동의 코스, 연구 방법, 가족법과 경제학 등을 첨가하며", 그리고 "직업 훈련이 아니라 사회와 삶의 질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학습에 대한 탐색적인 경험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p.32). 그러나 이 연구는 전체 가정학, 대학과정 수준에서 가정학자의 사회(직업) 진출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연구로 가정학의 비전문성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실제로 이 연구 직후 1974년에 New Direction II conference가 있었고, 이후 각 대학에서는 인간생태학적 패러다임의 수용과 학과 명칭의 개정이 있었다.

최근에 가정학의 이미지에 대한 개인 연구가 있었는데, LeBleu and Smith(1994)는 14명의 가정학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정학에 대한 그들의 경험과 인식을 연구했다. 그 결과 첫째, 아동기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가정학에 대한 경험과 인식에 대해서 그들은 가정학에 대해서 전통적인(요리, 재봉,

성역할 기대) 견해를 보임으로서 정형화된 특징을 지적했는데, 가정학에 대한 초기의 이미지와 인식은 어머니 혹은 어머니의 모습(할머니)에 대한 성역할 기대에 근거한 것이였다(p.429). 고등학교의 경험은 전통적인 것 혹은 현대적인 것으로 양분되어 있었는데, 전통적인 견해의 예를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중등학교 때의 경험은 요리와 재봉이 다였고, 나는 정말 가정학에 대한 넓은 안목을 가질 수 없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가정에 남아있을 계획인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것은 그들을 중심으로 고안되어졌고, 그것은 미래에 부유한 누군가와 결혼할 것이고 그 집에 남아있을 소녀를 위한 것이었다. 그들은 좋은 아내가 되는 좋은 방안을 제공받기 원했다." 현대적인 경험의 예를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 데이트와 구혼 혹은 결혼이라는 코스를 들었는데, 많은 남학생들이 수강했다. 나는 그들로하여금 가정학을 요리와 재봉의 측면에서가 아닌 다른 측면에서 보게해준다는 점에서 그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관계, 출산조절, 약혼, 결혼 등을 다루고 있었다."

둘째, 가정학에 대한 현재의 인식과 정의에 대한 질문에서는 이들에게 많은 인식의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가정학은」 living과 life, 그리고 모든것- 즉, 사회화, 영양, 건강, 그리고 돈의 관리 등이다.", "나는 가정학이 요리나 재봉 그리고 빨래 등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의복을 포함한 환경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것, ..가족을 교육시키는 것...,가족을 상담해주는 것..., 예산을 세우는 것을 포함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족을 안내해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p.431)

또한 학생들의 응답에서 가정학 세부 전공간의 연결에서 강조되는 테마는 가족, 개인과 가족, 전세계의 가족, 그리고 가족의 생활주기 등이었다. 즉, 학생들은 "가정학은 가족과 다른 가구 단위를 도와서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으로 이끌어주는 다양한 분야(disciplines)로 구성된 하나의 과학이자 응용분야이다. ..가정학은 사람들을 전생애에 걸쳐 그들의 삶의 모든 측면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데 중점을두고 있다", "가정학은 사람들에게 개인 혹은 가족이든지,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서비스나 재화를 공급하기 위한 매일매일의 생활(일상생활, everyday life)에서 사용되는 실제적인(practical) 지식의 분야이다."라고 응답하였다(pp.432-434).

최근에 미국의 가정과교육학회는 명칭을 개정하면서 새로운 비젼과 사명을 표방한 바 있다. 이것의 중요한 특징은 이 진술이 나타내고 있는 패러다임의 큰 변화인데, 식·의·주 그리고 아동발달과 같은 전통적인 내용에 초점을 두지않고, 가족 생활(family life), 일의 생활(work life), 그 분야에서의 직업(careers)을 준비하는데 있어서의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에 대한 좀 더 통합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쪽으로 변화하였다(Wanda S. Fox, 1996, p.85). 그 비젼은 첫째, 가정과교육(Family and Consumer Science Education)이 개인과 가족으로하여금 전생애에 걸쳐서 광범위하고 폭넓은 사회에서의 생활(living)과 일(working)에 대한 도전(challenge)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한다(empower)는 것과, 둘째, 우리의 고유한 초점은 가족, 일, 그리고 그것들간의 상호관계(interrelationship)에 있다는 것이다(Family and Consumer Science Education division American Vocaiontal Association, 1994). 또한 우리의 사명은 지식, 기술, 태도, 그리고 행동을 개발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학생들로하여금 가족의 생활, 일의 생활, Family and Consumer Sciences에서의 직업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과목이나 학문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는 그 명칭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 학문에서 지향하는 방향이나 가치를 명료하게 진술해주어야 한다는 것과, 그러한 방향의 진술에 사용되는 용어들이 얼마나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진술들이 얼마나 그 학문의 이미지 혹은 정체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있다.

### 2. 교육과정 개발에서의 이미지 연구

교육과정을 언급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목표에 관심을 기울인다. 그러나 구체적인 목표가 진술되어야 그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다는 기존의 관점은 이제 새로운 관점의 도전을 받고 있다.

1) 교육과정과 목표

전통적인 Tyler 식의 교육과정 개발 방식은 목표, 내용, 방법, 평가의 4단계로 이루어지며, 여기서 목표는 가장 먼저 구체적으로 진술되어야하고 또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왜냐하면 목표는 궁극적으로 그 교육과정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조건

혹은 준거이기 때문이다(Walker & Soltis. 허숙 역, 1995, pp.109-110) 그러나, 이와달리 Walker는 실제로 교육과정 개발자들은 이러한 네가지 단계를 그대로 따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 즉, 교육과정 개발자들이 작업에 임하면서 갖고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진술된 목표가 아니라, 그들이 학교나 학생, 학습, 교실, 사회 등에 대해 갖고 있는 신념과 좋은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막연히 갖는 관념들이다. 따라서 그들은 그들이 공유하는 신념을 서로 나누고 분명히 하는데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들은 Walker가 주장한 '정강(platform)'이라는 공통의 기본 가정을 가질 수 있다(이귀윤, 1996, p.196). 즉, 교육과정의 출발점은 집단 성원들이 공유하는 신념과 이미지 체계인 '정강(platform)'이다(Walker & Soltis. 허숙 역, 1995, p. 108).

언어 그 자체에 대한 이미지를 통해서 가정생활의 실재적 측면을 알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우리의 학문에서 중요하게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공유된 이미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2) 이미지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이미지 연구의 방법은 brainstorming인데, 이것은 project approach(Chard, 1997) 혹은 Mind Map(Buzan & Buzan, 1993) 등에서 사용되는 방법이다. Project approach(Chard, 1997, pp.51-60)에서 프로젝트란 토픽이나 테마에 관한 깊이있는 연구를 말하는 것으로, '연구주제'로 생각되기도 한다. 이것은 사전에 구체적으로 설정되기 보다는 교사와 학생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결정되어 나간다. 그 절차 중에서 브레인 스토밍(brainstorming)은 첫번째 단계인데, 어떤 방식으로든 토픽과 관련된 단어들을 최대한으로 적되, 종이 1 매당 한 단어씩 적는다. 그 단어들은 가능한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 이 때에 시각적 영상을 사용하여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그 때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것들을 적는다. 또한 모든 감각과 관련 지워 생각할 수 있고, 이 주제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수도 있다. 두번째는 그 단어들을 그 유사성과 차이점에 따라 몇 개의 그룹으로 분류한다. 여기서는 각 그룹마다 같은 수만큼의 단어를 갖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각 그룹을 특별하게 특징짓는 속성들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세번째는 나누어진 그룹 각각을 위한 표제나 제목을 쓴다. 각 그룹 안의 항목들을 연결하는 개념으로서 가장 적합하게 보이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선택한다. 네번째 단계는 주제망 혹은 가지의 형태를 지니는 심상지도(mind mapping)를 그리는 것인데, 이후 교사는 그러한 내용을 가장 잘 학습할 수 있는 학습 경험을 구성하고 학생들은 다양한 학습활동을 통해 학습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과 방법중 brainstorming 단계만을 부분적으로 사용하였다. 한편, Brainstorming 방법을 사용해서 대학생들이 '가정생활'에 대해 갖고있는 이미지를 조사하기 전에, 지금까지 가정과교육과정의 목표에서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왔으며, '가정생활'의 이미지는 어떻게 나타나있는지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 III. 가정과교육과정의 목표를 통해본 '가정생활'의 이미지

가정과교육과정의 목표를 시대별로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 1. 제 1차교육과정

제1차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목표 모두 '가정생활'에 일차적 관심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학교의 경우 목표가 매우 모호하게 진술되었고, 고등학교의 경우 가정생활을 기반으로한 사회생활에 관심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가정생활'을 개선, 향상, 운영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가정생활'은 의·식·주에 관한 생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제 2차교육과정

이때의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는 실업·가정과의 목표 속에서, 고등학교는 실업과와 분리되어 하나의 교과 수준으로 조정되면서 '일반관리' 목표와 '가정일반' 목표로 나누어서 진술되었다. 제 2차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의 경우 국민학교 실과의 연장교과로서 '일'을 강조하는 노작교과의 성격을 지니며, '가정생활'을 의·식·주·가정보건·가정관리 등에 관한 경험으로 보고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 '가정생활' 및 '생활'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나, 목표

〈표 1〉 제 1차 교육과정: 가정과교육의목표

| 중학교(실업·가정)[1] | 고등학교(가정)[2] |
|---|---|
| 가정생활에서 사회생활의 일원으로서 그 가정과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협심 협력해야 하는 의의를 자각함으로써, 이에 대한 지식과 기능 및 태도를 체득하여 스스로가 능력에 호응하는 분야에 힘을 충분히 발휘하는데 그 뜻이 있다. | ① 가정 생활을 기반으로 민주사회에 적응할 인간육성을 한다.<br>② 가정 생활의 모든일을 이해하여 가족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자각하고, 민주적인 가정생활을 행복하게 영위하는 능력과 실천을 기른다.<br>③ 가정 생활을 운영하기 위한 의·식·주에 따르는 복잡한 생활 내용을 가족관계에 기반을 두어 현실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경험과 가정생활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기른다.<br>④ 가정 생활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자진하여 가정 생활 개선을 위한 노력과 의욕을 환기시켜 실천케 하며 사회 생활 향상에 공헌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1]문교부(1955), 문교부령 제 45호,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 실업·가정과(1986), pp.106-107,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문교부(1955), 문교부령 제 45호,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 실업·가정과(1986), pp.361-362,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pp.361-362).

〈표 2〉 제 2차 교육과정: 가정과교육의목표

| 중학교[1] | 고등학교(가정일반)[2] |
|---|---|
| ① 의·식·주, 가정보건, 가정관리 등의 학습 경험을 통하여 가정생활을 이해시키고, 이를 향상 발전시키려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br>② 가정생활의 합리화와 협동 정신을 통하여 국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 ① 가정 생활의 지식과 기능을 양성하여 생활을 향상할 수있게 한다.<br>② 직업 의욕과 그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의 체득한다.<br>③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생활을 영위할수 있는 주부를 양성한다<br>④ 가정과 사회, 국가와의 관계를 이해시켜 노력, 협조, 봉사하는 태도와 기능을 육성한다.<br>⑤ 책임감 있게 일을 하고, 아름다운 성과를 내며 유쾌하고 안전하게 진행시킬 수 있게 한다. |

[1]문교부(1969), 문교부령 제251호,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 실업·가정과(1986), p.194,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문교부(1963), 문교부령 제120호,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 실업·가정과(1986), 대한교과서주식회사

만 볼때 무엇을 지향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 그러나 주부의 양성을 염두에 둔 '가정생활'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가르치는 교과임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어서, '가정생활'을 '주부와 관련된 집안에서의 일'로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제 3차교육과정

아래의 표에 의하면, 중학교의 가정교과에서는 식·의·주생활, 육아, 가정관리에 관한 과학적 기능과 지식이 '가정생활'을 구성하는 내용이며, 이러한 '가정생활'을 합리적이며 생산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그 목표로 삼고 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여전히 부덕을 강조하고 있어서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나타내었다. 고등학교 '가정교과'에서도 '가정생활'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경영으로 해석하는 한편,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여 학문이 지향하는 바를 일관성있게 밝혀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고등학교의 '일반관리'에서는 합리적인 생활, 한국 여성으로서의 덕성함양, 가정 생활의 충실, 가정 생활에 직결되는 과학적 지식과 기능의 습득 등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가정생활과 그러한 가정생활에 어울리는 전통적인 성역할이 강조되었다.

〈표 3〉 제 3차 교육과정: 가정과교육의목표

| 중학교(가정; 여자)[1] | 고등학교(가정)[2] |
|---|---|
| 1)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적 지식과 기능을 기르며 가족의 성원으로서의 보람과 의무를 깨닫게 하여, 생활을 창의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한다.<br>2) 식·의·주 생활과 육아, 가정관리에 관한 과학적 기능과 지식을 습득시켜, 가정 생활을 합리적이며 생산적으로 관리하고 근면·절약하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br>3) 우리의 미풍양속에 대한 이해를 깊게하며, 현대 산업기술과 가정생활과의 관계 및 여성의 역할을 이해시켜 우리나라 고유의 부덕을 계승 향상시키며, 산업사회에서 적응하는 현대적 생활을 영위하게 한다. | ① 가정 생활의 중요성과 여성의 사명을 인식시키고, 가정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켜, 생활을 합리화하며 창의적으로 개척하게 하고, 국민 생활 향상에 기여하게 한다.<br>② 가정 경영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켜, 생활을 과학화하고 명랑하게 영위할 수 있게 한다.<br>③ 현명한 소비자, 근면한 생산자로서의 자질을 길러 가정 경제의 안정과 향상을 이룩할 수 있게 한다.<br>④ 우리나라 여성의 전통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현대 여성으로서의 생활 교양을 높여서 한국적인 부덕을 향상시키게 한다.<br>⑤ 현대 산업 사회에서 여성의 구실을 알게 하여, 새로운 산업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게 한다. |

[1]문교부(1973), 문교부령 제 325호,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 실업·가정과(1986), pp.219-225,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문교부(1974), 문교부령 제 350호,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 실업·가정과(1986), pp.452-456,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4. 제 4차 교육과정

제 4차 교육과정부터 고등학교 가정교과도 실업'가정과에 속하게 되면서 직업교과로서의 성격이 더욱 강조되었다.

이 때의 가정교과의 성격을 보면, 중학교의 경우(문교부, 1982c, pp.160-162), 가정과교육은 본질상 가정학과 동일한 성격과 목적을 가지고 있고, 가정생활과 실생활에 관심이 있으며, '자신의 생활과업, 가정생활, 가정생활 현상, 가정생활 문화, 가정생활의 질 향상, 자신과 가족의 생활 향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고등학교에서도(문교부, 1982d, pp. 182-183) '가정생활'이 여전히 학문의 제 1차적인 관심의 대상임을 강조하고 있고, '산업 사회 속에서 사회인, 가정인으로서 두가지 역할을 겸하여 질 높은 가정 생활과 사회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도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가정교과의 목표에서는 중학교에서 '일상생활'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지만, 그 이전까지 '생활'로 표시된 것은 때로는 '가정생활'을 나타내거나, 때로는 가정생활 이외의 '일상생활'과 거의 동일한 의미로 쓰여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의'식'주생활의 영위를 '일상생활'로 파악하고 있어서 다시한번 용어의 혼란스러움을 더해주고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가정생활을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가족, 아동양육 등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습득으로 세분화해서 제시하였다.

### 5. 제 5차 교육과정

이 시기의 중학교 가정교과의 특성을 보면, 가정교육은 生活技術 및 生活敎養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 한편 고등학교에서는 '家庭生活과 그것을 둘러싼 인간, 문화를 학습의 대상으로 하며, 생활교양의 습득, 생활개선과 질적 향상에 관심을 두고 있다(이인희·이옥임, 1997, p.83 재인용).

아래의 목표를 통해서 보았을 때,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의·식·주 및 소비생활은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가정의 의미, 인간발달 및 가족관계는 '가정생활'로 파악하고 있다.

〈표 4〉 제 4차 교육과정: 가정과교육의목표

| 중학교(가정)[1] | 고등학교(가정)[2] |
|---|---|
| 1) 나와 가족 및 사회와의 관계, 자원의 중요성을 이해하여,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협동하여 생활하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br>2) 의·식·주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여, 자신의 일상생활을 창의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한다.<br>3) 가정 생활과 직업과의 관계를 이해하여, 자신의 진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근로와 직업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 ① 가정 생활의 본질과 그 관리 및 가정 경제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여, 건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br>② 식생활의 자원과 영양 및 식사 관리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하여 건전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br>③ 의류 재료와 의복 구성의 원리 및 의생활 관리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하여, 올바른 의생활을 영위할 수있게 한다.<br>④ 주생활의 의의, 주택 설계와 시공의 기초 및 주생활 관리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하여 쾌적한 주생활을 영위할 수있게 한다.<br>⑤ 가정의 형성과 가족 발달 및 가족과 사회에 관한 이해를 깊게 하여 가족과 사회 복지를 증진할 수있는 자질을 가지게 한다.<br>⑥ 아동 양육의 의의를 인식하고 출생과 성장발달, 양호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하여 아동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게 한다. |

[1]문교부(1982a), 문교부 고시 제442호, 중학교 교육과정, pp.118-124
[2]문교부(1982b), 문교부고시 제442호, 고등학교 교육과정, pp.179-184

〈표 5〉 제 5차 교육과정: 가정과교육의목표

| 중학교(가정)[1] | 고등학교(가정)[2] |
|---|---|
| 1) 현대 사회에서 가정 생활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가족원의 성장과 발달 과업을 이해시켜, 가족과 사회의 일원으로서 협동하는 생활태도를 가지게 한다.<br>2) 의·식·주 및 소비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켜, 일상생활을 창의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한다.<br>3) 현대 사회와 직업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근로와 직업을 존중하게 하여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게 한다. | ① 현대 사회에서 가정의 의미, 인간 발달 및 가족관계를 이해시켜, 가족 복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br>② 의·식·주 및 소비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켜, 일상생활을 창의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한다.<br>③ 가정과와 관련있는 분야의 직업 세계를 이해시켜, 자신의 진로를 설정할 수 있게 한다. |

[1]문교부(1987), 문교부고시 제87-7호, 중학교 실업·가정과 교육과정 해설, pp.174-184
[2]문교부(1988), 문교부고시 제88-7호, 고등학교 실업·가정과 교육과정해설, p.186-190

### 6. 제 6차 교육과정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직업'에 대한 강조가 줄어든 반면, 중학교 수준에서는 가장 많이 '가정생활'을 강조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가정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은 고등학교 수준에서 다시 의·식·주 및 소비생활의 관리로 해석되고 있고 '가정생활'은 '가족생활'과 다른 것으로 진술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현재까지 가정교과의 목표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첫째, 가장 자주 등장하는 용어는 '가정생활'이며, 그 다음이 '일상생활' 혹은 '생활', '지식 및 기술' 등의 용어이다. 따라서 주로 1차적인 관심의 대상이 가정생활 및 그와 관련된 생활의 요소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각 교육과정마다 그 목표에 가정생활, 일상생활이라는 용어가 혼재되어 등장해온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특히 70년대 이후 인간생태학적 패러다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가정학과 생활과

〈표 6〉 제 6차 교육과정: 가정과교육의목표

| 중학교[1] | 고등학교[2] |
|---|---|
| 총괄목표; 가정생활에 대한 체험적인 학습을 통하여, 자신과 가정생활의 관계를 이해하고, 가정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태도를 가지게 한다.<br>하위목표; ① 가정생활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하고,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알게한다.<br>② 가정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여, 이를 일상생활에 실천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br>③ 가정생활에 자주적이고 협동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 ① 가족관계 및 인간 발달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가족 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한다.<br>② 의·식·주 및 소비 생활의 관리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가정관리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br>③ 가정의 안녕과 복지 증진에 책임감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의 안녕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한다. |

[1]교육부(1992a), 교육부 고시 제1992-11호, 중학교 가정과 교육과정해설, pp.47-49
[2]교육부(1992b), 교육부 고시 제1992-19호, 고등학교 실업·가정과 교육과정 해설, pp.109-111

학의 명칭의 덜레마로부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결과이며, 또한 실업 및 직업교과의 성격을 강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가정'이라는 공간적 장소 안에서의 생활이라는 한정된 이미지를 주는 '가정생활'이라는 용어대신에 가정 밖에서의 인간의 생활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일상생활' 혹은 '생활'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서 학문과 교과의 이미지를 좀 더 전통적 관점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의·식·주 및 소비생활을 때로는 '가정생활'로, 때로는 '일상생활'과 관련시켜 진술하고 있어 '가정생활' 및 '일상생활'의 의미가 매우 혼란스럽게 진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세째, '가정생활'이나 '일상생활'이라는 용어 자체가 목표에 직접 사용되거나 혹은 세분화되어서 가족관계, 의·식·주·아동발달·소비생활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즉, '가정생활'의 구성요소는 가족관계 및 인간발달, 의·식·주 및 소비생활 등의 가정학 각 하위 영역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때의 가정생활의 내용은 주로 의·식·주·아동·가족·가정관리에 관한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을 나타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만일 가정교과에서 가정생활에 1차적인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성과 해석이 타당하며 가정교과가 이러한 생활의 내용을 다루는 가장 적절한 교과임을 주장하려면, '가정학이 전통적으로 의·식·주·가족·소비등의 하위 전공들로(주로 대학의 학문영역과 일치하는) 구성되어졌기 때문에'라는 설명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며, '가정생활이 이러한 차원으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라는 정당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서 또하나의 의문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가정생활은 과연 이러한 측면으로 나누어서 보는 것이 올바르며 정당한가?'와 '실제의 가정생활은 현재 가정교과에서 다루는 지식의 내용, 성격,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가?'하는 것이다.

네째, '가족생활'을 '가정생활'과 분리해서 생각해왔는데, 이때의 '가족생활'은 가족관계 영역을 말하는 것이다. 특히 고등학교 6차 교육과정에서는 가족관계는 '가족생활'로 의·식·주 및 소비생활은 '가정관리'의 차원에서 해석하여 가정생활의 구성을 인적차원과, 물리적·자원 관리적 차원으로 나누어 본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제 3차 교육과정까지는 '여성으로서의 덕성 혹은 부덕함양'등의 표현을 교과 목표에 직접 진술함으로서 가정교과가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반영하고 있었으나, 점차 이러한 직접적인 표현은 사라졌다. 그러나 '가정생활'을 가정관리, 의·식·주 및 소비생활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과 기술 등으로 진술하는 한, '가정생활'이 여성의 일이며 고유한 영역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즉, 가정과 교육과정의 목표를 통해서 보았을때, '가정생활'은 가정교과의 1차적 관심이었으며, 학문의 중요한 목표이자 대상이였다. 그러나 인간생태학적 관점과 실업 및 직업교과의 성격을 강조한 결과로 '일상생활' 혹은 '생활'이라는 용어가 혼재해왔으며, '家庭'에 대한 초점은 오히려 더 흐려진 결과

를 가져왔다. 현 6차 교육과정에서 중학교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가정생활을 강조하고 있으나, 고등학교에서는 가족생활,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소비생활로 세분화하여 목표를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교과의 목표이자 학문의 대상은 가정 내의 생활 관리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가정외의 생활에 있는 것인지 명료하지 않다. 즉, 목표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용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명료하지 않고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만일 가정교과의 목표와 관심이 두가지 모두라면 어떻게 이러한 넓은 관점을 하나의 교과로 묶어줄 수 있는지, 그리고 왜 가정교과가 인간의 생활을 다루는 교과인지에 대한 정당한 설명이 필요하다.

## Ⅳ. 대학생들을 대상으로한 brainstorming을 통해서 본 가정생활의 이미지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은 '가정생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가정', '일상생활' 등의 용어와 비교하여 질문하였다. 사용된 질문과 그 응답을 보조 연구자와 함께 분석하여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래의 각각의 주제는 많이 응답한 순서대로 제시되었다.

### 1. '가정'에 대한 이미지

"'가정'하면 생각나는 것은?"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학생들의 응답은 따뜻함(화목), 휴식 및 편안함, 공유(가족, 공간적 공동체, 의·식·주생활), 사회의 기본단위, 갈등 및 구속 등의 다섯가지 주제의 이미지로 묶여졌다.

1) 따뜻함(화목)

따뜻한 스프, 안식과 평안을 얻는 공간, 밝은 조명과 아늑한 거실, 나를 보호해주는 곳,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는 인간의 최종 안식처, 그리움, 위안, 인정, 사랑, 화목, 서로에 대한 애정, 우애, 정겨움, 소중함, 사랑스런 나의 가족들, 포근함, 포근한 잠자리, 둘러앉아 먹는 과일, 굴뚝, 행복한 가정, 서로를 아끼는 마음, 자유와 대화, 부부가 만나 서로 도와주고 사랑함, 가족이 모여노는 모습, 아이들의 웃음소리, 행복한 모습, 함께 모이면 즐거움, 서로 아껴주기.

2) 휴식 및 편안함

휴식, 휴식처, 쉼, 쉬는 곳, 쉼터, 보호, 편안한 느낌, 부드러움, 가식이 필요 없는 곳, 항상 마음을 열고 쉴 수 있는 곳,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휴식과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장소, 지친몸과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곳, 속마음을 말할 수 있는 곳, 따뜻한 몸과 마음의 안식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안락한 분위기, 지친몸과 마음에 평화와 안정을 줄 수 있는 곳, 고향, 바람막이, 결혼, 잠담, 나태함, 휴식처, 이해타산이 없는 순수한 관계

3) 공유

(1) 가족

우리집, 우리 가족, 부모님, 형제, 동생들, 자매, 배우자, 사람, 나의 뿌리, 결혼, 혈연관계, 언제나 함께하는 사람들, 가족의 결합, 부모님과 자녀, 가족 구성원들,가족이 생활하는 곳, 단결됨, 의사소통

(2) (공간적)공동체

울타리, 유일함, 공동체 의식, 노력의 대상, 공동주거, 경제적 협력, 혈연으로 이루어진공동체,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최소단위, 두 성인 남녀를 기초로하는 공동체

(3) 의·식·주 및 생활

의·식·주, 의·식·주를 해결하는 곳, 단지 혈연이라는 이유로 의·식·주를 함께하는 사람들, TV, 청소, 일상생활, 아침식사, 저녁식사

4) 사회의 기본단위

사회구조의 기초 단위, 사회적 노동력의 재생산, 재충전의 장소, 혈연으로 맺어진 작은 단위, 국가를 이루는 작은 단위, 기본적인 1차 집단, 태어나서 최초로 접하는 단체, 사회의 구성단위, 핵가족

5) 갈등 및 구속

(1) 갈등

남녀차별의 체험, 고통분담, 파탄, 이혼, 불화, 가출,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어 위기에 처하면 쉽사리 문제해결을 보기 힘들고 불행해질 수 있는 곳, 용서

(2) 구속

구속, 자녀의 자유를 박탈, 자녀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며 책임을 가지는 것, 때로는 번거로운 것.

이러한 결과는 조은숙·옥선화(1995)의 '가족'의 이미지에서 나타난 것처럼 가정의 긍정적이고 이상적인 측면이 강조되기는 하였으나, 가정의 부정적인 이미지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 '가정생활의 이미지'

"'가정생활'하면 생각나는 것은?"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학생들의 응답은 화목, 공유(함께함), 갈등·상호작용·고민, 휴식·여유·편안함·안정감, 반복·활동·가사일, 기본단위·공동거주, 책임 및 의무, 재생산 등의 여덟가지 주제의 이미지로 묶여졌다.

1) 화목

화목, 화목함, 이해심, 오손도손, 조화, 친근함, 가족간의 화목, 친목, 가족들과 잘 지내는 것, 가족들과의 단란함, 일일연속극 '정때문에', '바람은 불어도', 공경, 가족들이 함께 모인 화목한 저녁시간, 행복한 풍경, 정다움과 우애, 가족의 건강, 가장 맛있게 밥 먹을수 있는 삶, 행복한것, 문화생활, 인간다움을 만들어내는 가장 근본적인 삶의 테두리, 친목과 대화, 서로를 위하고 모든 것을 감싸줄 수 있는 것, 즐거움, 따뜻함, 가족과 함께 협동하고 가정내 문제를 해결해나가면서 기쁨과 슬픔을 느끼는 인생의 필수적인 코스, 엄마는 저녁을 만들고 아빠는 아이의 숙제를 도와주는 저녁한때의 모습, 서로 베푸는 것, 부부는 서로 아끼고 양보, 자녀에게는 사랑을 주는 것, 자식에 대한 무한한 사랑, 헌신, 사랑, 서로에게 무한정의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주는 사람들의 사이, 도와줌, 협조, 서로 위안과 고민을 주고받고 보호받는 생활

2) 공유(함께함)

가족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여유의 시간, 같이 밥먹기, 식사하기, 같이 TV보기, 같이 커피마시기, 같이 과일먹기, 어울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함, 같이 놀러가기, 공동생활, 대화, 잠, 울타리, 가족간의 대화, 엄마랑 목욕탕 가기, 가족과 함께하는 생활, 가족과의 시간, 식구들을 위해 음식도 만들고 집안도 꾸미며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편하게 공유하는 생활, 가족 구성원의 공통된 생각 아래에 생활해 나가는 것, 가족과 함께 하는 것

3) 갈등(상호작용, 고민)

얘기 안함, 개인적으로 바쁨, 성장하면서 말 못하는 것도 생기는 생활(고민), 가족이라는 구성원이 서로 부딛히면서 살아가는일, 바쁜 느낌, 서로서로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과정, 부딪치고 싸우면서 서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 엄마와 아빠가 말다툼하는 모습, 남자가 여자의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 설거지 안했다고 잔소리 듣는 것, 부대낌, 식구들끼리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는 것, 아빠랑 TV 채널 싸우기, 쉴 새 없이 가족들과 싸우고, 웃고, 떠듦, 반목, 갈등, 그리고 화해, 노력, 가정생활에서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갈등과 해결방법, 서로에게 맞춰가며 생활해나가는 것, 서로 상호작용하는 일련의 활동들, 가족간의 이해, 분란, 화해 등 가정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 사랑하는 가족과 서로 사랑하며 또 때로는 상처 주기도 하면서 사는 것, 대화로 모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존재하는 공간

4) 휴식 및 안정감

(1) 휴식·여유·편안함-식사, 침대, 휴식, 엄마랑 이야기하는 것, 휴식, 편안함, 눈치보지 않음, 여유로움, 주말에 뒹굴면서 tv보는것, 융통성, 긴장이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하는 것, 자연스러운것, 편안한 생활, 모닝커피, 가족들의 휴식시간

(2) 안정감

엄마가 기르시는 베란다의 화초(안정감과 여유, 취미), 나의 생활의 근간이 되고, 기준이 되는 생활, 안정

5) 반복(가사일, 총체적 활동)

(1) 집이라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반복되는 일·가사일

가사, 가사일, 가사노동, 집안일, 아침부터 씻고 밥하기, 우리집, 거실, TV보기, 청소, 요리, 설겆이하기, 음식을 만들기, 밥먹기, 씻기, 잠자기,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 의·식·주 생활, 빨래, 장보기, 엄마의 집안일, 여성의 가사노동, 육아, 주부중심, 단순함, 반복된 생활, 가사일의 되풀이, 자질구레한 일, 피곤, 일상생활의 반복,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것, 육아,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아이, 가족구성원이 각자의 일을 하는 것, 부모님은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한 일을 자녀는 각자의 미래를 위한 일, 돈, 애기, 접촉,

(2) 가정 내의 총체적 활동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총체적 활동, 가정내에서 일어나는 혹은 행하는 행위 또는 위치, 사회생활과 반대되는 개념, 가정 외적인 사회생활의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생활, 가족이 살아나가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 사적인 활동, 가족 구성원들이 가정내에서 행하는 모든 생활

6) 사회의 기본단위(공동거주)

모든 사회생활의 시초이자 귀결점이 되는 활동, 부모와 자녀로 구성되는 공동거주, 경제적 협력을 통한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흔히 우리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의 생활, 누구나 할 수 있다.

7) 책임 및 의무

책임과 의무, 규율, 규칙, 교육, '잘꾸려야지' 다짐하는 것. 부자유스러운 것, 재미를 못느낌, 자기의 생활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산다는 느낌,

8) 재생산

사회적 노동력 재축적활동, 생산력의 창조와 노동력의 재생산,

이러한 결과는 '가정'의 이미지와 매우 유사하나 가정생활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이 많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가정생활의 긍정적, 부정적 표현이 함께 기술되었는데, 이는 현실에서의 자신의 경험을 많이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공유'에 대한 개념을 보면, '식구들을 위해 음식도 만들고 집안도 꾸미며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편하게 공유하는 생활'이라는 표현을 볼 때, 가정생활의 대표적인 의·식·주 행동은 가족과 함께, 그리고 가족의 만족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행동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 3. '일상생활'의 이미지

"'일상생활'하면 생각나는 것은?"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학생들의 응답은 반복·단순함·지겨움, 편안함 및 안정감, 구속·답답함, 하루하루의 다양한 활동, 인간관계, 사회생활(생활의 범위) 등의 여섯 가지 주제의 이미지로 묶여 졌다.

1) 반복·단순함·지겨움

(1) 반복-routine, 지루한 반복, 매일 반복되는 생활패턴, 잠자기, 먹기, TV보기, 외출하기, 학교갈 준비를 하고 버스타고 학교와서 수업듣기, 밥 먹을 때 되면 밥먹기, TV보고 자는일,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것, 자의든 타의든 특별한 의미없이 반복되는 삶, 항상 똑같은 얼굴의 사람들 보는것, 반복적 사소한 사건연속, 같은 일의 반복, 매일의 별다른 변동없이 반복되는 행위나 관계,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연속성, 습관, 매일 반복되지만 무시해버릴 수 없는 모든 일들, 흘러가는 시간, 생각없는 날들, 반복적 행동을 통해 특별한 목적을 잊고 생활하는 것, 필수적

(2) 단조로움-특별하지 않은 생활, 누구나 경험, 공통분모적, 가끔은 벗어나고 싶은 것, 단순함, 단조로움, 무미건조함, 재미없음, 무료함, 따분, 비슷한 일들로 이루어지는 하루,평범함, 보통사람의 보통모습, 중요한 것,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행동들, 의미없는, 무의식적, 기계적으로 행해지는 반복적이며 무자극적인 행동, 평범 , 예외가 별로 없는 생활, 특별히 다른 일 없음, 변화의 욕구

(3) 지겨움-지겨움, 나태, 반복되는 힘겨움, 날 지치게 함, 따분함, 지루함, 늦잠, 변화 없는 계획표, 무변화, 쳇바퀴, 특별하지 않은 생활, 인간들의 생활, 사회생활, 평소, 보통, 이상이 없는, 학교와 집, 아침에는 일어나기 싫은데 억지로 일어나는 것, 계속적인 사회적 활동, 틀에 박힌 것, 틀에 박힌 하루하루, 도피하고 싶은 하루하루, 일상의 탈출-여행

2) 편안함 및 안정감

익숙해져버린 것들, 당연한 것, 규칙적, 매일 반복되는 정상적인 생활, 새로운 것을 접할 기회가 적다, 사회적 의식적 생활이 적어지는 생활태도, 책임의식이 크게 요구되지 않음, 평온, 조그만 것에도 기뻐할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느낄수 있는 생활

3) 구속(답답함)

답답함, 벗어날 수 없으며 곤란한 것, 복잡함, 짜증남, 피곤, 답답함, 긴장과 갈등이 나를 힘들게 하는 곳, 갈등, 고민, 생각, 해결, 생존경쟁, 적자생존, 힘의 논리, 노력, 빈틈없는 나를 요구하는 생활, 벗어날 수 없으며 곤란한 것, 심리적·육체적 구속, 속박, 자유로움의 반대말, 강제성, 긴장, 경쟁심, 획득, 좌절, 관계, 바쁨, 정신없음, 얽매임

4) 하루하루의 다양한 활동

나의 인생을 하루하루 보내는 느낌, 인간들의 생활, 사회생활, 학교와 집, 계속적인 사회적 활동, 음악듣기, 친구랑 수다떨기, 공부, 학교가기, 집에 오기, 놀러가기, 취미, 뉴스, 잠자고, 먹고, TV보고, 외출하고, 밥먹고, 샤워하고, 의·식·주, 세수하기, 화장, 나갔다 들어오기, 이부자리 정리하기, 가족끼리 오손도손 이야기도 하고 밤에는 잠 자고 그런 아주 평범한 하루, 평범함, 학업, 연애, 취업, 미래설계, 영어공부, 결혼, 맞선, 일기쓰기, 여러사람, 공부, 친구들과 노는 것, 쇼핑, 학원, 독서실, 고시원, 커피, 스포츠 신문, 빨래, 일, 교통생활, 교회, 아르바이트, 의·식·주

5) 인간관계(대인관계)

개개인이 서로 맞추며 살아나가는 것, 개성, 신뢰, 믿음, 불신, 친구들, 동생들, 사람들, 대인관계, 기대, 사색, 연애.

6) 사회생활

자기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단위, 경제적이거나 사회적인 연관, 가정생활과 사회생활, 가정생활과 학교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가사노동,가정생활보다 조금 범위가 더 큰 생활, 사회생활과는 공존하는 개념, 가정 생활을 포함한 그 밖의 사회속에서 늘 하는 일, 가정생활에 국한되지 않은 여러현상, 즉 우리가 접하는 학교, 지역사회, 자연환경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생활.

이같은 결과는 '日常'이라는 표현 자체가 주는 언어적 선입견의 영향이 매우 컸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가정생활'과는 주로 그 부정적인 측면이나 비정서적으로 표현된 이미지들에서만 중복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상의 대학생들의 응답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표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7〉 가정, 가정생활, 일상생활의 이미지

| '가정'의 이미지 | '가정생활'의 이미지 | '일상생활'의 이미지 |
|---|---|---|
| 1. 따뜻함(화목) | 1. 화목 | 1. 반복 · 단순함 · 지겨움 |
| 2. 휴식 및 편안함 | 2. 공유(가족과 함께하는 생활) | 2. 편안함 및 안정감 |
| 3. 공유(가족, 공동체, 의식주 생활) | 3. 갈등(상호작용) | 3. 구속(답답함) |
| 4. 사회의 기본 단위 | 4. 휴식(여유, 편안함) 및 안정감 | 4. 하루하루의 다양한 활동 |
| 5. 갈등 및 구속 | 5. 반복(가사일, 총체적 활동) | 5. 인간관계 |
| | 6. 사회의 기본 단위 | 6. 사회생활 |
| | 7. 책임 및 의무 | |
| | 8. 재생산 | |

위와 같은 결과를 분석해보면,

첫째, '가정'에 대한 이미지는 '가정생활'의 이미지와 대체로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따뜻함(화목), 휴식 및 편안함, 공유(가족, 공동체, 의 · 식 · 주 생활), 사회의 기본 단위, 갈등 및 구속" 등이 '가정생활'에서도 공통적인 이미지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정생활'의 이미지는 '생활'이라는 용어가 첨가됨으로서 '가정'에 대한 이미지보다 더 구체적인 것으로 묘사되었다. 예를들어 '공유'의 개념은 '가정'에 대한 이미지의 경우 "가족성원, 공동체, 의 · 식 · 주생활"로 표현되었다면, '가정생활'의 이미지에서는 "같이 밥먹고, 같이 TV 보기, 식구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고 집안도 꾸미며,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편하게 공유하는 생활" 등 가족들과 함께 어울려서 하는 구체적인 활동들로 표현되었다.

둘째, 본 연구에 의하면 가정에 대한 혹은 가정생활에 대한 이상화 경향이 어느정도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응답자들은 '가정' 혹은 '가정생활'의 이미지가 따뜻하고, 화목하고, 편안해야하며, 그리고 가족이 함께해야 하는 점을 우선적으로 지적하여서 조은숙 · 옥선화(1995)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응답은 완성된 문장이 아닌 형용사 혹은 명사형으로 진술된 것이 많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이상적인 이미지만이 가정생활에서 전적으로 충족되어야하는 의무적인 것으로 진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학생들은 특히 '가정생활'에 대한 이미지에서 갈등, 구속(상호작용, 부딪침, 화해), 책임과 의무 등의 부정적인 견해도 보이고 있어서 자신의 경험 및 인식을 어느정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세째, '가정생활'의 이미지와 '일상생활'의 이미지 중 "반복(활동, 가사일), 책임 및 의무" 등은 중복되어 나타났으나, 그 나머지 것들은 다소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가정생활'의 이미지가 '가정'에 대한 이미지와 가까우며 '일상생활'에 대한 이미지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가정이 가족을 중심으로한 사회적 단위이기 때문에 가정생활의 주체는 가족이 되며, 일상생활의 주체는 개인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학생들은 가정생활을 일상생활

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일상생활을 자신의 사회생활로 확대해석하는 경향을 보였다.

네째, 일상생활의 이미지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반복, 단순함, 지겨움이었는데, 그 이유는 '日常'이라는 표현 자체가 주는 언어적 선입견의 영향이 매우 컸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가정생활'과의 중복되는 이미지들은 주로 그 부정적인 측면이나 비정서적으로 표현된 것들이였는데, 그 이유는 '일상생활'을 '날마다 되풀이되는, 다양한 장소에서의 다양한 모든 활동'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일상'의 사전적 의미가 '날마다, 늘, 항상'이며, '일상생활'의 사전적 의미는 '날마다의 생활, 평소의 생활'(엣센스 국어사전, 1989)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은 인간의 모든 삶의 현상 및 세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정생활'처럼 제한된 범위나 특별한 대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광범위하고 산만한 응답을 보였으며, 부정적인 이미지가 부각된 것으로 생각된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의도는 가정과교육의 목표에서 1차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다루어져온 '가정생활'이라는 용어 그 자체가 주는 이미지를 알아보고자 시도되었으며, 가정교과에 대한 이미지를 보고자 함은 아니었다. 그러나 가정교과에서 가정, 가정생활, 일상생활 등의 용어들을 중요하게 다루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에 대한 이미지는 가정교과의 이미지 그 자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1차부터 6차까지의 중등가정과교육의 목표들에서 다루어져온 '가정생활'의 이미지를 살펴본 결과를 몇가지 점에서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자주 등장하는 용어는 '가정생활'이며, 그 다음이 '일상생활' 혹은 '생활', '지식 및 기술' 등의 용어이다. 따라서 학문의 1차적인 관심의 대상이 주로 가정생활 및 그와 관련된 생활의 요소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각 교육과정마다 그 목표에 가정생활, 일상생활이라는 용어가 혼재되어 등장해온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의·식·주 및 소비생활을 때로는 '가정생활'로, 때로는 '일상생활'과 관련시켜 진술하고 있어 '가정생활' 및 '일상생활'의 의미가 매우 혼란스럽게 진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세째, '가정생활'이나 '일상생활'이라는 용어 자체가 목표에 직접 사용되거나 혹은 세분화되어서 가족관계, 의·식·주·아동발달·소비생활로 제시되기도 하였는데, 이때의 '가정생활'의 내용은 주로 의·식·주·아동·가족·가정관리에 관한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을 나타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네째, '가족생활'을 '가정생활'과 분리해서 생각해왔는데, 이때의 '가족생활'은 가족관계 영역을 말하며, 의·식·주 및 소비생활은 '가정관리'의 차원으로 보았다.

다섯째, 제 3차 교육과정까지는 '여성으로서의 덕성 혹은 부덕함양'등의 용어를 교과 목표에 직접 진술함으로서 가정교과가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반영하고 있었으나, 점차 이러한 직접적인 표현은 사라졌다. 그러나 '가정생활'을 가정관리, 의·식·주 및 소비생활 등으로 진술하는 한, '가정생활'이 여성의 일이며 고유한 영역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즉, 가정과 교육과정의 목표를 통해서 보았을때, '가정생활'은 가정교과의 1차적 관심이었으며, 학문의 중요한 목표이자 대상이였다. 그러나 '일상생활' 혹은 '생활'이라는 용어가 혼재해왔으며, '家庭'에 대한 초점은 오히려 더 흐려진 결과를 가져왔다. 현 6차 교육과정에서 중학교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가정생활을 강조하고 있으나, 고등학교에서는 가족생활,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소비생활로 세분화하여 목표를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교과의 목표이자 학문의 대상은 가정생활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가정외의 생활에 있는 것인지 명료하지 않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대학생들에게 '가정, 가정생활, 일상생활'의 이미지를 brainstorming 방식에 의해 자유롭게 기술하게 한 결과를 몇가지 점에서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에 대한 이미지는 '가정생활'에 대한 이미지와 여러가지 공통점을 갖는다. 즉, 따뜻함(화목), 휴식 및 편안함, 공유 등이 공통적인 이미지로 나타났다. 이것은 응답자들이 '가정'과 '가정생활'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갖는 이상적인 욕구, 아이디어, 바램의 상태, 공유된 관념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미지가 가정생활에 바라는, 그리고 그 결과

로서 가정교과에 대해 바라는 욕구라고 확대해석하는 것은 무리이지만, 적어도 이러한 용어들에 대한 사람들의 아이디어, 기대, 심상,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응답자들이 '가정'과 '가정생활'이라는 용어에 대해 떠올리는 이미지는 주로 감정적, 정서적인 측면이며, 가족 성원들과 가족 전체가 제대로 그 기능을 수행할 때 이루어지는 바람직한(혹은 이상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조은숙·옥선화(1995)의 연구에서도 가족에 대한 이상적이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밝힌바 있으나, 이에대해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본 연구자는 이미지가 사람들의 경험을 반영한 집단적인 아이디어, 속성, 심상등을 나타낸다면, 오히려 '가정', '가정생활'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인 이미지들에 가정과교육이 더 관심을 갖고 사람들의 실제의 삶과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실제 연구결과에서도 학생들은 가정과 가정생활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반영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가정생활의 이미지는 결코 이상적이지만은 않다고 볼 수 있다. 가정과교육의 목표에서 이 용어를 사용할 때는 가정생활에 대한 이러한 이미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만일 대학생들이 응답한 이미지가 그들의 경험을 어느정도 반영한 것이라면, 가정교과의 목표에서 궁극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은 '가정생활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상태'가 아니라 위와 같은 이미지를 개개인에게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충족시켜주는 상태'일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가정학에서는 가정생활에 대한 연구가 주로 각자의 전문적인 학문영역과 관련된 차원에서만 이루어져왔으나, 가정교과의 교육과정을 고려할 때 우리는 '가정에서 어떤 행동이 많이 이루어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정 혹은 가족과 관련된 행동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하는 중요한 것(측면)은 무엇인가?'를 더 많이, 그리고 통합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

둘째, 그러나 응답자인 대학생들은 가정생활에 대한 바람직하며 이상적인 이미지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가정생활의 이미지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다. 즉, 갈등, 고민, 반복, 책임과 의무 등을 지적하였는데, 이러한 측면은 일상생활의 이미지와 많이 중복되는 것이였다. 차후의 연구에서는 실제로 학생들 자신의 가정생활에서의 경험과 일상생활에서의 경험, 그리고 이들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깊이있게 연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일상생활에 대한 이미지중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이미지는 반복, 단순함, 지겨움 등으로 부정적인 견해가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이미지는 '일상' 이라는 언어 그 자체가 주는 선입견의 영향을 받은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상생활'에 대한 이미지는 더 많이 연구해야할 주제이다.

네째, '가정생활, 가정, 일상생활'이라는 용어 자체가 주는 이미지가 가정교과에서 다루는 내용영역인 가족생활,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소비생활의 차원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가정과교육의 목표에서, 그리고 학문의 대상으로서 이러한 용어들을 진술할 때 우리는 적어도 이러한 용어들의 이미지가 그 학문의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용어들을 그 의미 혹은 이미지에 대한 심사숙고 없이 사용해서는 학문의 정체성이나 특성이 모호해질 우려가 있다.

위와 같은 결과들을 볼 때, '가정생활'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더 자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가정생활'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가족'(family)이라는 개념보다는 '가정 혹은 가구'(home, household)라는 개념을 더 쉽게 떠올린다. 본 연구에서도 가정생활과 가정의 이미지는 거의 동일할만큼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정과교육과정의 목표를 통해서 보았을 때, 우리는 가정생활과 가족생활을 서로 다른 것으로 생각해온 것을 알 수 있는데, Brown(1980, pp.38-41)에 의하면 '가족'과 '가정'이 거의 동일한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Brown에 의하면, 가정학(home economics)이란 말은 1899년에 처음 사용되었는데, 그 당시의 'household arts'라는 지배적인 명칭과 구분하기 위해서였다. 초기의 가정학자들은 "home"이라는 단어를 "economics"(household management)에 붙임으로서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 형성되는 사회적 단위 혹은 센터임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가정학에서 이루어지는 전문적인 행위의 특정한 초점은 가정과 가족이며, 그 행위의 결과 혹은 목적은 가족의 그리고 가족에서 살고 있거나 가족으로부터 나온 개인의 복지(welfare)와 안녕(well-being)이다. 즉, 가정생활은 단순히 의·식·주에

관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그러한 생활을 유지하는 가족성원들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가정과교육과정에서 진술된 '가정생활'과 달리 대학생들은 '가정'과 '가정생활'의 이미지를 거의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가정생활'에 대한 이미지를 훨씬 더 다양하게 해석하였고, '가정생활'의 긍정적·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가정학과 가정과교육에서는 '일상생활'을 '가정생활'의 확대로 보아왔기 때문에, '일상생활' 역시 의·식·주·소비생활 등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으나, 전문가가 아닌 대학생들은 '일상생활'이라는 용어 그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으며, 전문가들과는 다른 의미로 이 용어를 이해하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용어를 학문의 목표에서 사용할 경우,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가정생활 및 일상생활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의도는 무엇인지 더 명료하고 일관되게 진술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연구를 바탕으로 몇가지 제언을 덧붙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앞으로 가정생활에 대한 의미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가지고 더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 질문은 1) 가정생활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더 자세히 밝혀야 한다. 2) 가정생활에 대한 가족의 욕구를 밝혀주어야 한다. 그러나 초점을 맞추는 방식은 집안이라는 공간적인 의미로 다시 회기하여 집 안에서의 생활에 맞추기보다 개인-가정-사회의 연관성 속에서 가족의 문제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3) 가정생활과 관련된 용어들, 즉 사회생활, 일상생활, 직업생활 등의 의미와 관계를 더 깊이있게 연구해야 한다. 4) 가정과교육이 실제로 사람들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어떤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연구해야 한다.

둘째, 가정과교육의 목적 및 목표를 더 명료하게 진술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가정과교육과정의 목적 및 목표는 학문 자체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으므로 반드시 구체적으로 밝혀줄 필요가 있다. 그것은 목적 및 목표 그 자체의 전체적인 진술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사용되는 용어 하나하나에 대한 심사숙고와 합의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참 고 문 헌


김경애(1997). 제9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주제강연-제7차 가정과 교육과정의 방향 모색-,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제9권 제1호. pp.193-198

남현주·유태명(1996). 중학교 가정과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을 위한 집단탐구수업 모형의 적용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제8권 제2호.

고현숙·김기남(1989). 여고생의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 및 학습내용의 활용도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제1권, 제1호.

민경숙(1990), 가정과 교육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인문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민중서림, 엣센스 국어사전, 1989

성화경(1990). 대학에서의 가정과 교사 교육. 제2차 학술대회 주제강연.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제2권, 제1호

윤서석(1990). 가정과 교수학습의 실제-제2차 학술대회 주제강연-,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제2권, 제1호. pp.111-117

이귀윤, 교육과정, 교육과학사, 1996

이기열(1991). 21세기를 향한 가정과교육의 방향, 제3차 학술대회 주제강연,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제3권, 제1호, 179-188.

이영세(1995). 가정학이 추구하는 가정의 안녕과 복지의 개념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인희·이옥임(1997). 가정과교수법. 수학사.

장영오(1993). 중학교 가정과 교육과정 구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은숙·옥선화(1995). 家族像 연구의 접근법 및 그 적용. 대한 가정학회지, 제33권, 제1호, pp.111-124.

최동숙(1996). 중·고등학생의 가정생활 참여도 및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남'여학생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제8권, 제2호 pp.15-28.

문교부(1982a). 문교부 고시 제442호, 중학교 교육과정,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문교부(1982b). 문교부 고시 제442호, 고등학교 교

육과정,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문교부(1982c). 연수자료 : 중학교 새 교육과정 개요
문교부(1982d). 연수자료 : 고등학교 새 교육과정 개요
문교부(1986).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 실업·가정과, 대한교과서주식회사
문교부(1987). 문교부고시 제 87-7, 중학교 실업·가정과 교육과정 해설
문교부(1988). 고등학교 실업·가정과 교육과정 해설.
교육부(1992a). 교육부 고시 제1992-11호,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교육부(1992b). 교육부 고시 제1992-19호, 고등학교 실업·가정과 교육과정 해설
Baldwin, E,E(1988). Toward congruity between aims and practice in Home Economics Education, Paper presented at a meeting of teachers of Home Economics in secondary schools, at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Brown, M.M.(1980). What is Home Economics Education, Washington, DC: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Buzan & Buzan(1993). The mind map book, A plum/ penguin book
Chard, C. S.(1997), The project approach, 지옥정 역. 프로젝트 접근법, 창지사
Daniel Yankelovich Inc.(1974). Home Economics image study: a qualitative investigation. Paper prepared for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East, M.(1980). Home Economics; Past, Present, and Future, Allyn and Bacon, Inc.
Family and Consumer Science Education division American Vocaiontal Association, (1994). Vision and Mission Statement, In Wanda S. Fox (1996). A call to explicate the vision and mission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 Education. Journal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 education, Vol.14, No.1, spring/summer, p.90.
Larson, S.G.(1974). A hypothetical moral obligation to define clearly the general goal of Home Economics: A philosophical analysis.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Minnesota.
LeBleu, L.C. and Smith, F. M.(1994). Professionals' Perceptions of Home Economic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22, No.4, June, pp.422－440.
Pratt, D(1994). Curriculum Planning.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Walker & Soltis(1985). Curriculum & Aims, 허숙 역(1995), 교육과정과 목적. 교육과학사.
Wanda S. Fox(1996). A call to explicate the vision and mission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 education. Journal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 education, Vol 14, No 1, spring/summer.